한국석탑(韓國石塔)의 조형미(造形美)

진홍섭

一

한국은 석탑의 나라라고 한다. 삼국시대부터 이조시대에 이르는 오랜 동안에 만들어진 크고 적은 탑들이 전국 방방곡곡에 없는 곳이 없다. 그 중에는 이삼십(二三十)척이 넘는 거탑이 있는가 하면 불과 몇 치 밖에 안 되는 소탑도 있다. 그 중에서도 석탑은 수에 있어서나 형태미에 있어서나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오랜 시간이 흐르는 동안 탑이 지닌 가치에 변동을 가져왔고 탑의 형태 또한 이에 따라 변천해 갔다. 따라서 석탑의 형태는 그 자체가 시대적인 특징과 연관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탑은 원래 인도에서 발생하여 중국을 거쳐 우리 나라에 수입된 것이다. 탑의 원의(原義)는 스투파(stupa)로서 원래 부처의 유골을 묻은 곳이라는 뜻이 있다. 이것을 중국식으로 음역(音譯)하여 탑파(塔婆)또는 탑(塔)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이러한 탑은 석가여래 입적(入寂)후 그의 유해들 다비(茶毗)에 부치고 유골을 팔(八)등분하여 관계국에 분배 봉안케 한 것이 탑의 기원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 당시의 탑은 전하는 것이 없고 서력 기원 전후하여 만들어졌다는 인도 산치 지방에 있는 탑이 가장 오랜 것으로 되어 잇다. 이 탑의 외형은 후세의 고총분묘(高塚墳墓)와 흡사하여 기단(묘단(墓壇))이나 난순(欄楯)은 호석(護石)이나 난간주(欄竿柱)를 돌린 신라의 전칭(傳稱)왕릉과 거의 같은 형태를 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탑은 중국을 거쳐 우리 나라에 전해질 때는 매우 달라져 방형 층급(層級)의 형태로 변하였다. 그러면 이 땅에 탑이 이루어지기는 언제부터일가. 그것은 불교의 전래와 함께 생각할 문제이니 불교는 소수림왕(小獸林王) 2년(二年) (서기 372(三七二)) 고구려에 전해진 것을 비롯하여 백제(서기 384(三八四)), 신라(서기 528(五二八)가 뒤를 따랐다. 그러나 불교 전래와 동시에 탑이 건립되었다는 기록은 없음으로 불교 전래를 곧 기탑(起塔)과 결부시킬수는 없는 일이다. 따라서 한국 탑파의 기원문제에 대하여는 二,三의 참고할 기록이 있기는 하나 아직 불명인 채로 남아 있다.

여하튼 우리 나라에 있는 탑은 신라 선덕왕 때 조성한 경주 분황사 석탑을 위시하여 목탑,전탑, 석탑, 금속탑, 토탑 등 여러 가지 재료의 탑이 있으나 그 중 석탑은 각 시대를 통하여 가장 많이 만들어진 탑이다. 석탑도 화강석 청석, 안산암, 대리석등의 재료를 사용하였으나 그 중에서도 화강석석탑이 가장 많다. 한국의 산에는 어디 가든지 깨끗한 화강석이 산출되어서 우리 조상들은 이런 돌을 마음대로 이용하였으니 석탑뿐 아니라 석불에 있어서도 화강석으로 조성한 석불을 어디서나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현존한 우리 나라 탑은 대부분이 석탑이다. 이 석탑들은 층급(層級)을 이루는 방탑(方塔)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그 외에 다각탑이 있고 방탑의 원류를 따르면서도 부분적으로 특별한 의장(意匠)을 가한 것이 있다. 이러한 석탑들은 시대를 따라 형식을 달리하였으니

이것은 곧 우리 나라 석탑의 양식 변천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석탑은 목탑에서 기원하였다고 한다. 목탑 즉 목조건축물을 석조로서 충실히 번안(飜案)한 것이 처음으로 나타났으니 이것을 시원양식(始源樣式)이라하고 석탑에 괴체성(塊體性)이 나타나서부터 전형양식(典型樣式)으로 옮기게 됐다. 전형양식은 시대가 내려옴을 따라 탑 표면에 장식성이 가미되며 따라서 탑의 가치관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되지만 여기서는 이러한 점보다도 석탑의 조형적인 면에서만 대표작을 들어 그가 가지고 있는 미를 찾아볼까 한다.

경천사지 십층석탑

二

충남부여군 부여 읍에 五층석탑이 있다. 이 탑은 그 초층 탑신(塔身)에 당장(唐將), 소정방(蘇定方)이 백제를 평정 한 후 그 공을 각자(刻字)하였다고 해서 평제탑(平濟塔)이라고 속칭되고 있으나 이미 백제시대에 이 탑은 건립되어 있었고 그후 「정림사(定林寺)」라고 각자 한 와편(瓦片)이 발견되어 「정림사지 五층석탑」으로 부르는 것이 옳다. 이 탑은 단층 기단(基壇)위에 세워진 방형탑(方形塔)으로 초층탑신 四우(隅)에 거대한 석주(石柱)를 세웠는데 위는 좁고 밑은 넓은 소위 엔타시스가 있고 그 사이에 세로 두 장식의 판석을 끼워서 면석(面石)을 삼았다. 기둥 위는 신라시대 석탑에서 보는 바와 같이 층단을 이루지 않고 목조 건축의 두공(斗栱)양식을 약화(略化)해서 받침을 만들고 옥개석(屋蓋石)을 받치고 있다. 옥개석은 널직해서 그대로 목조 건축의 지붕을 보는 것과 같다. 제二층 이상도 같은 수법이지만 넓이나 높이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이 탑은 이 보다 앞서는 전북 익산(益山) 미륵사지(彌勒寺址) 석탑과 함께 목조탑을 모방한 시원

양식에 속하는 탑이다. 미륵사지 석탑보다는 탑신이나 옥개석 받침에 규칙성을 볼 수 있음은 세련된 형식이라 하겠다. 각부 구성이 간결함과 옥개석이 광활함은 이 탑의 안정성을 돋구고 그대로 목조건물을 보는 것과 같다. 옥개석의 추녀 전각이 약간 들려 있음은 백제 탑의 특징으로 이와 같은 형식을 모방한 탑이 후세에도 만들어졌다. 고구려나 신라에서도 물론 석탑이 만들어졌을 것이지만 경주 분황사(芬皇寺)석탑을 제외하고는 남아 있는 것이 없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무렵부터는 석탑은 형식적으로 한 구조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었으니 二중의 높은 기단이 있다든지 기단면석에는 각각 탱주(撐柱)를 두었다든지 옥개석 받침이 층단을 이루는 점등은 그 특색이다. 이러한 구조는 이후 오랫동안 한국 석탑의 하나의 기본형태를 이루었으니 이러한 형식을 전형양식(典型樣式)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상의 여러 가지 특징은 그것이 목조탑에서 출발한 것임에는 틀림없으나 백제 석탑과는 구조를 달리하고 있으니 이것은 목조탑에서 一단 전탑(塼塔)으로 옮겨졌다가 다시 석탑으로 번안(飜案)되었던 탓이다. 옥개석 밑에 층급(層級)을 이루는 받침은 이런데서온 수법이다.

이와 같은 양식을 보이는 석탑으로는 감은사지(感恩寺址), 三층석탑(경북 월성), 고선사지(高仙寺址) 三층석탑(경북 월성), 나원리(羅原里), 五층석탑(경북 월성)등이 있다. 이러한 석탑들은 모두 거대한 탑으로서 전형양식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을 뿐 아니라 세부에 있어서 적은 석재를 사용한 점은 가구성(架構性)을 보이는 것으로 목급 형식의 여운을 남기고 있다. 거대한 모습은 주위를 위압하고 있으며 백제석탑에 비하여 옥개석이 단촉(短促)함은 전탑에서 온 것이지만 장중한 기풍은 신라 석탑의 진면목이 여기 있다고 하겠다. 탑신의 팽배한 힘이나 각층 옥개석의 체감되는 아름다운 비율은 모두 이 시대의 특징으로 넘치는 활력을 느낄 수 있어 장위(壯偉)한 조형미를 나타내고 있다. 신라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석탑이 있되 이 탑들로서 석탑의 대표가 될 만한 걸작이라 할 것이다. 더욱이 순백(純白) 양질(良質)의 화강석은 장중함을 더해 주고 있다.

이러한 양식을 이어 받은 것이 八세기 중엽에 조영(造營)된 불국사(佛國寺) 서(西) 三층석탑이며 이 유(類)에 속하는 이에 갈항사지(葛項寺址) 三층석탑(서울 경복궁), 황복사지(皇福寺址), 三층석탑(경주), 보림사(寶林寺) 三층석탑(전남 장흥), 실상사(實相寺) 三층석탑(전북 남원), 봉암사(鳳岩寺) 三층석탑(경북 문경) 등이 있다. 이 탑들은 규모에 있어서 앞서의 탑보다 적어 졌고 탑신이나 옥개석이 각각 一석으로 되어서 괴체성(塊體性)이 나타난 작품이다. 그렇다고 해서 석탑으로서의 조형미를 손상시킨 것은 아니다. 그 중에서도 불국사 탑은 최대의 걸작이다. 높직한 기단 위에 층층이 쌓인 탑신과 옥개석은 높이나 넓이에 있어서 실로 아름다운 비례를 보이고 있다. 고대(高大) 한 풍은 없으나 짜임새 있는 웅건(雄健)한 작풍(作風)을 보이고 있다. 통초에 있어서 목조 탑파의 여운을 남겨 웅대한 작품을 남겼던 석탑은 이즈음에 이르러 전형 양식으로서의 틀이 잡히고 빈틈없이 짜여져서 이로써 한국 석탑의 전형 양식은 하나의 기준을 이루었던 것이다. 후대의 석탑은 규모가 적어지고 탑 표면에 장식성이 가미되기는 하였으나 모두 이 기준을 따르게 되었다.

한국 석탑의 미를 말할 때 기단탑신에 조각이 가미되어 장식적 효과를 더한 예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것은 탑의 가치는 떨어진다 하더라도 조형적으로는 장엄을 더해 주고 있다. 기본 형태는 전형양식을 따르고 있으면서 표면에 보살(菩薩), 팔부중상(八部衆像), 사천왕상(四天王像), 인왕상(仁王像), 十二지상(支像)등이 조각되었다. 그 중 원원사지(遠願寺址) 삼층석탑(경북 월성)은 상층 기단의 각 면에 탱주 둘을 세워서 三구로

나누어 四면 十二구에에 각각 천의(天衣)가 날리는 十二조지상을 새기고 초층 탑신에는 사천왕상을 四면에 조각하였다. 전체적으로 세장(細長)한 감은 있으나 화사한 모습이 볼만하다. 더욱 장엄한 예는 화엄사(華嚴寺) 서 五층석탑(전남 구례)이니 하층 기단에는 十二지상을, 상층기단에는 팔부중상을 초층 탑신에는 사천왕상을 각각 조각하였다. 탑 면에 이러한 조각을 하게 되면 조각한 부분은 자연히 높아지게 마련인데 따라서 이 탑도 전체적으로 세장한 감을 주기는 하나 원원사탑과 한가지로 화사한 감을 주고 있다. 석탑 장식의 극치를 다한 예로 실상사 백장암(實相寺 百丈庵), 三층석탑(전북 익산)을 들 수 있다. 이 탑은 단층 기단 위에 서 있는 탑으로 각 층마다 탑신 하부에는 난간을 돌리고 상부에는 두공을 모각(模刻)하여 목조건물의 세부를 타나냈고 옥개석 위에도 우동(隅棟)형을 모각하였다. 또 각층 탑신 四면에는 모두 조각이 있는데 제 一층에는 보살상과 신장상(神將像)을, 제 二층에는 주악 천인상(奏樂 千人像) 각각 二구를, 제 三층에는 천인상 一구를 조각하였고 옥개석 받침은 층단식이 아니고 방형 연화문석(蓮花紋石)으로 받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탑 전면에 조식(彫飾)을 가한 예는 없는 것으로 장엄을 더하고 있다. 더욱이 상륜부 마저 완전히 보존되어 더욱 조화된 형태미를 보여주고 있다. 높이 약 五m의, 그다지 높지 않은 탑이지만 각부의 좋은 비례와 각명(刻明)한 조각은 아름답기 이를 데 없다. 신라시대 석탑으로 상륜부가 완존하여 한국 석탑의 완전한 모습을 보여 주는 탑으로 봉암사(鳳岩寺), 三층석탑(경북 문경)이 있다. 하층 기단을 생략한 점을 제외하고 전형양식을 따르고 있다. 상륜부는 층층이 쌓아올린 세부가 완존하고 전체 높이 六・三m에 대하여 상륜부 높이 二・四m로 실로 아름다운 비례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 나라 석탑의 상륜부는 일부 혹은 전부가 망실되었거나 또는 찰주(擦柱)만을 남기고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 탑은 한국 석탑의 완형을 보여주고 있다.
고려시대에도 대체로 전형양식을 따르고 있으나 세부 양식에서 다소의 변화를 보였고 다각탑(多角塔)같은 새로운 형식이 나타났다. 이 시대의 석탑은 대체로 규모가 적어지고 탑 표면에 장식성이 많아지고 있다. 현화사지(玄化寺址), 七층석탑(경기 개풍), 개심사지(開心寺址) 五층석탑(경북 예천)등이 그런 유에 속하다. 현화사지 탑은 각 층 탑신 四면에 안상(眼象)을 새기고 그 안에 석가삼존상(釋迦三尊像)을 조각하여 장엄을 극하였고 개심사지 탑에는 하층 기단에 안상안에 十二지상을, 상층기단에 八부중상을 각각 조각하였다. 이런 탑들은 비교적 거작에 속하는 탑들인데 대체로 중후한 감을 주는 것이 이 시대 석탑의 특징이라 하겠다. 신라 석탑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쾌 장중한 것보다 조형미에 있어서 약간의 차등(差等)을 두어야 하겠으나 이런 탑들은 그런 대로 고려시대 특유의 조형 감각을 간직하고 있다고 하겠다. 남계원지(南溪院址) 七층석탑(서울 경복궁)만 보더라도 신라 석탑에 비하여 비교적 감축률이 적어서 세장한 감이 있는 점, 옥개석이 추녀 끝의 전각이 들려있는 점등 중후한 가운데 고려시대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조에 들어와서는 거의 탑의 조성을 볼 수 없으니 따라서 아름다운 조형미를 보여주는 탑은 거의 없다. 다만 원각사지탑이 있으나 뒤로 미룬다.

갈항사지 삼층석탑

三

이상과 같은 전형양식에 있어서는 대체로 소박 장중한 조형미를 보일 뿐 다채로운 변화를 볼 수 없으나 틀을 벗어난 이형탑(異型塔)에 있어서는 실로 우리들의 의표(意表)를 벗어난 걸작을 남기고 있다. 그 중에서도 불국사 다보탑(多寶塔)과 화엄사 사사(四獅)三층 석탑은 가위 신품(神品)이라 할 수 있다. 다보탑은 그 중에서도 전무후무한 신라 석탑의 상규(常規)를 벗어난 작품이다. 기단 四면에 석계단을 설치하고 기단 위에는 五개의 석주와 넓직한 두공형으로 갑석(甲石)을 받게 하고 그 위에는 八각 三중의 신부가 있는데 제 一층은 四각 난간을 돌리고 제 二층은 八각 난간을 돌린 속에 신부 주위로 八개의 죽절형(竹節形)기둥을 세워 연화대를 받고 제 三층은 구두를 거꾸로 세운 모양의 받침으로 八각 개석을 받고 있다. 그 변화무쌍함을 어찌 이로 다 표현하랴. 넓고 큼직한 옥개석 위에는 거의 완전한 상륜이 첨가되었으니 석조 기술의 뛰어남은 물론이지만 어디서 이러한 묘상(妙想)이 생겨났는지 실로 기상천외의 일이다. 경쾌하면서도 장려(壯麗)하고 번잡한 듯 하면서도 통일되어 마치 목조 조각을 보는 듯하다.

다보탑과 쌍벽을 이루는 탑으로 화엄사 四三층석탑(전남 구례)이 있다. 탑에 사자를 배치하는 예가 이미 분황사(芬皇寺) 석탑 경주 불국사 다보탑 의성 관덕동(義城 觀德洞)三층석탑(경북 의성)등에 있음을 알고 있으나 이들은 기단 갑석에 따로 만들어 올려놓았던 것인데 이 탑에서는 우주(隅柱) 대신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하층 기단에는 각 면 三구씩 十二구의 천인상(天人像)이 인상 내에 조각되었고 상층기단 우주가 설자리에는 연화대 위에 두발을 모으고 앉은 사자 네 마리가 있고 머리 위에도 역시 연화대를 이고 있다. 중앙에는 연화대 위에 선 대덕(大德)의 모습을 입상으로 원각(圓刻)

하여 세워 큰 개석(蓋石)을 받고 있다. 초층 탑신 四면에는 문비형(門扉形)이 조각되고 그 좌우에 인왕상, 사천왕상이 조각되었다. 하층 기단의 천인상은 각양 각색의 형태를 보여서 변화를 주었고 四 사자의 배치는 그 기원이 분황사탑 같은데 있다고 하더라도 실로 범인(凡人)은 四 사자와 아울러 입체감을 돋구고 있다. 이 탑의 전면에는 간주석(竿柱石)사이에 인물좌상을 안치한 특이한 형식의 석등(石燈)이 남아 있는데 석탑과 석등의 배치나 그 위치 또는 주위의 환경 등이 조화되어 있는 걸품(傑品)이다. 이 형식은 고려시대에 전해져서 사자빈신사(獅子頻迅寺)(충북 제천)에 나타났으나 조형적으로 저소(低小)해지고 위축(萎縮)된 작품이다.

한국 탑으로 또 하나 이례적(異例的)인 형태를 가진 것으로 경천사(敬天寺) 十층석탑(서울 경복궁)이 있다. 이 탑은 명문(銘文)에 의하면 지정(至正) 八년 삼중대광 진녕부원군 강융(三重大匡 晉寧府院君 姜融)이 원(元)의 황제, 황후, 황태자의 수복을 축도하고 아울러 국가의 안태(安泰)를 빌기 위하여 만든 것이다. 지정 八년은 고려 충목왕(忠穆王) 四년(서기 一三四八)에 해당한다. 원래 경기도 개풍군 광덕면(開豐郡 廣德面) 경천사에 있었던 것을 일본 궁내대신 다나까(宮內大臣 田中光顯)가 일본으로 가져갔으나 파손이 심하여 도로 반환하여 오랫동안 경복궁 근정전 회랑에 방치했던 것을 一九六0년(年) 현 위치에 재건한 것이다. 이 탑은 회색 대리석 탑으로 四면이 두출(斗出)한 아(亞)자형 기단 三층이 있고 그 위에 같은 형태의 탑신 三층이 놓이고 그 위에는 방형 탑신 七층이 놓여 十층을 이루었다. 기단과 각층 탑신에는 난간을 모각(模刻)하고 전면이 조각으로 차 있으며 옥개석은 기와, 석가래, 두공등 목조건물의 세부를 충실히 모각하고 있다. 기단 각 면에는 불, 보살, 인물 등의 군상도(群像圖)를 비롯하여 초화 용 등의 무늬로 차 있으며 각층 탑신의 각 면에는 十三 불회(佛會)를 색이고 불보살천부를 빈틈없이 조각하였다. 조각은 정교하며 완미(完美)한 형태와 아울러 고려시대 석탑 중 가장 변화가 많은 예이다. 이 탑에서는 기단 구성이나 옥개석 추녀의 곡선이나 상륜부의 형태 등으로 보아서 다분히 라마 미술의 영향을 볼 수 있으니 충목왕 때는 원의 공장(工匠)의 내왕이 많았으므로 그 영향이 많았을 것은 넉넉히 추측된다. 각명한 조각이나 기발한 형태나 정교한 형태는 고려나 중국에서 이와 비등한 예를 찾을 수 없다.

경천사 탑을 모방하여 이루어진 탑이 이조시대 유일의 걸작인 백대리 석제 원각사지(圓覺寺址) 十층석탑(서울 탑골공원)이다. 일설에는 세조(世祖) 十二년(서기 一四六七)에 건립되었다고 하는데 이조초기에 건립된 것만은 틀림없을 것 같다. 아자형의 三층기단과 三층탑신 그 위의 七층의 방형 탑신으로 十층을 이루는 기본 형태는 경천사탑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 기단이나 탑신 각 면의 조각의 주제(主題)도 같으며 탑신에 있는 난간 옥개석에 표현된 기와 두공 등 모두 그를 따르고 있다. 조각의 세부 수법에 있어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이 시대 건축이나 조각의 놀라운 솜씨를 보이고 있다.

四

신라의 석탑은 목탑에서 전탑을 거쳐 발달하였다는 말은 전에 하였다. 신라 석탑 중에는 이와 같은 경위를 말하는 모전(模塼)석탑의 예가 적지 않다. 모전 석탑에는 두 가지의 형태가 있으니 가장 충실히 그를 모방한 형태로는 석재를 전(塼)과 같은 형태로 잘라서 쌓아 올린것이고, 다른 하나는 옥개석 낙수면(落水面)에 층단을 이루어 전탑을 모방하였을 뿐 다른 부분은 전형 양식을 따르고 있는 것의 두 가지다. 전자의 예로는 가

장 오랜 것이 분황사 석탑이다. 이 탑은 신라 선덕왕(善德王) 三년(서기 六三四)에 조영되었던 것인데 고려시대에 이미 개탑(開塔)한 사실이 밝혀졌고 서기 一九一五년에는 근본적인 수리를 가하여 현재의 모습이 되었으나 이것이 원래의 모습은 아니다. 이 탑은 흑색 안산암(安山岩)을 잘라서 싼 탑으로 초층 탑신 四면에는 감실(龕室)을 만들고 문비를 달고 그 좌우에 인왕상을 조각하였다. 원래의 형태는 알 수 없으나 경북 안동(安東) 등지에 있는 전탑과 같았던 것이며 이러한 유의 모전 석탑이 경북 영양(英陽), 충북 제천(堤川)등지에 있어 아마도 같은 형태였으리라고 생각된다. 전이라는 것은 재료를 사용한 까닭으로 첨하가 넓지 못한 것이 특징이다. 분황사 탑은 이러한 모전탑 중에서도 가장 웅대한 것으로서 인왕상의 조각상과 아울러 전탑이 가지는 독특한 형태미를 보이고 있다. 다른 한가지의 모전 탑은 의성 탑리(義城 塔里) 五층석탑(경북 의성)이 대표하는 석탑으로 빙계동(氷溪洞) 五층석탑(경북 의성), 경주 남산리(南山里) 삼층석탑, 경주 서악리(西岳里) 三층석탑 등이 이 류에 속하는 것이다. 탑리 석탑은 단층 기단 위에 선 전형양식을 보이는 탑이지만 옥개석 낙수면과 받침이 층단을 이루어 전탑 옥개석의 양식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 옥개석이 대체로 단촉(短促)함을 면치 못하고 있으니 이것은 전탑이 가지는 필연적인 제약이라고 하겠다. 이 탑은 우주 위에 목조 건축에서와 다름없는 주두(柱頭)받침을 얹었으니 이것은 목탑 양식의 번안이며 이 탑은 그가 가지는 특이한 형태미와 아울러 양식의 변천과정을 보이는 중요한 예이다. 고준(高峻)한 형태를 보이며 엄정(嚴整)한 선(線)에서 위엄을 느끼게 한다.

五

한국의 석탑은 삼국시대에서 이조시대에 이르는 오랜 동안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하면서 조영되었다. 웅장하고 장엄한 형태에서 섬세 우려한 형태로 변천 해 갔으며 그 중에는 조형적으로 심미(審美)의 대상이 되는 것도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것도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 석탑은 불교국인 인도, 중국, 일본의 어느 나라 석탑보다도 질에 있어서나 형태에 있어서나 뛰어나고 수(數)에 있어서도 우리 나라 조형적인 문화재중에서 수위(首位)를 차지하고 있다. 취록(翠綠)에 덮인 산야(山野)에 서 있는 순백의 석탑은 그야말로 한국 불교 미술의 상징이며 대표가 될 만 하다.

(필자(筆者) 이화여대박물관장(梨花女大博物館長))

보살피는 문화재에
깃드는 민족정신